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창립 15주년을 감사하는 예배가 지난 15일 오후 5시 구 미주복음방송 사옥 5층 소망선교회에서 거행됐다. 미주성시화운동 사무실은 이 건물 4층에 있다.

“성시화 위해 달려온 15년 감사합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창립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미주성시화운동은 지난 15일(주일) 오후 창립 15주년과 사무실 이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과거 LA 한인타운 월드 미션대학교 건물 내에 있던 사무실은 이번에 구 미주복음방송 사옥 4층으로 이전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모델로 삼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성시화 운동은 한국의 경우, 1972년 춘천에서 故 김준근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미주성시화운동은 2003년 LA에서 시작됐으며 그동안 다민족기도대회, LA성시화대회, LA홀리클럽 정례모임 등 LA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도해 왔다. 이외에도 교계연합단체 중 하나로서, 얼마 전까지 사랑의 쌀 나눔운동, 한인 자녀 고국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세계교육선교대회, 故 빌리 그레함 목사 추모예배, 글로벌선진학교 후원 등 다양한 사역을 했다.

이날 예배에는 미주성시화운동

회장 및 임원, 홀리클럽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이성우 상임본부장이 사회를 맡았고 옥세철 LA홀리클럽 회장이 기도했으며 김수희 여성홀리클럽 부회장이 성경 왕상18:36을 봉독했다.

진유철 공동회장은 “지금도 계속되는 갈멜산 영적 전쟁”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지금도 이 세상에 온갖 악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엘리야가 머뭇거리던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듯, 성시화운동이 영적 승리를 거둘 뿐 아니라 이 시대의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완중 LA총영사, 서영석 LA평통회장, 송정명 미주대표회장, 최문한 이사장이 참석해 축하 및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완중 총영사는 “LA 동포사회를 위한 일

이라면, 총영사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 공동총재, 박희민 국제총재 등은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고 김경수 미주홀리클럽 회장은 홀리클럽의 지난 15년을 회고했다. 예배는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의 축도로 끝났으며 이어진 교제의 시간은 한기형 상임회장이 인도했다. 이날 행사 중에는 여성홀리클럽의 하프 합주, 순무브먼트의 박종술 대표와 SMTC 찬양팀의 찬양인도 및 특송 시간도 있었다.

김준형 기자

미주성결교 총회장에 최경환 목사

제39회 총회 LA에서 열려

미주성결교회 제39회 총회가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이라는 주제 아래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LA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개최 중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오전 열린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에 최경환 목사(직전 부총회장)가 추대됐다. 부총회장의 경우는 김용배 목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미주에 현재 11개 지방회, 200여 교회가 소속된 이 교단은 한국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민되면서 지난 1980년 창립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영어권 2세 교회 설립 추진, 교



최경환 총회장

역자 상조회 발족, 지교회 부흥과 선교 전략 등 여러 중요 현안들을 결정하게 된다. 또 총회 기간 중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의 특강을 비롯해, 목회자 은퇴 플랜, 목회자의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다양한 특강이 진행됐다. 목사안수식도 거행돼 9명이 목사로 임직했다.

엘비 권 기자

오픈청지기재단, 62곳에 기금 수여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의 기금 수여단체가 선정, 발표됐다. 오픈뱅크는 매년 지역사회를 섬기는 단체들의 사역을 후원하고자 오픈뱅크 수익의 10%를 오픈청지기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6년간 172만 6천 달러를 지역사회로 환원한 바 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난 2017년에 선정된 수여단체 62곳은 오는 4월 25일 오후 6시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이 기금을 받게 된다. 한

인들에게 익숙한 단체로는 효사랑선교회,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코이노니아선교회, 샬롬장애인선교회, 소망 소사이어티, YNOT 파운데이션, 한미연합회,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파바월드, KYCC 등이 이번에 기금을 받게 됐다.

올해 지원되는 총 금액은 기금수여일인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오픈뱅크는 나스닥에도 상장되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북가주 산타클라라에도 지점을 개소했다.

말씀 안에 힘을 얻는 특별한 토요일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가 “말씀 안에 힘을 얻는 특별한 토요일”을 남가주 한인들에게 선사한다.

이 교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말씀 부흥회를 연다. 강사는 4월 21일에는 한길교회를 담임했던 노진

준 목사가 강사로 서며, 4월 28일에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5월 5일에는 고창현 목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 5월 12일에는 김한요 목



고창현 목사

사(베델한인교회)가 각각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이 집회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교회 주소) 188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교회 전화) 310-618-2222

QCA가 미용 선고를 후원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당당히 봉사하세요!
 기독일보후원 소수에게만 드리는 특별학비

- 미용 헤어 토탈 자격증 1600시간 \$2,900 (\$16,360)
- 미용 스킨 자격증 600시간 \$1,900 (\$7,900)
- 미용 네일 자격증 400시간 \$900 (\$2,900)

*전 한국 국가대표가 직접 가르치는 고급 기술반 \$1,000/8회

QCA Beauty College 준 박 T.(213)232-3837
 3660 Wilshire Blvd, #338 Los Angeles, CA 9001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2018

“말씀 안에 힘을 얻는 특별한 토요일” 토요 말씀 부흥회

매 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4/21 노진준 목사
 前 한길교회

5/05 고창현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

4/28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5/12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북한에서 ‘나쁘다’ 배웠던 교회, 그러나 아니었다”

[인터뷰] ‘목발의 탈북자’ 지성호 씨의 기독교 신앙

지난 1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연두교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던 탈북자 지성호 씨. 그가 힘차게 들어 보였던 목발은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은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던 지성호 씨... 북한인권을 외면치 말라던 외침은 마침내 전 세계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 지성호 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그에게 있어 기독교 신앙은 삶의 “100%”다. 기독교를 빼놓고 그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동료 탈북자들과 함께 만든 북한인권 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성호 씨를 12일, 서울 인사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기독교를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한국에 오기 전인 지난 2000년, 굶주림 때문에 잠시 탈북해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호기심에 ‘교회가 정말 나쁜 곳인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교회가 나쁘다고 배웠나 보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걸요. 교회는 나쁜 곳이며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해하게 만든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고 목사라고 말이지요.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마약과도 같다고.

-북한이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야 김일성이 신이 되어야 하니 까요. 그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어선 안 되는 거죠.

-북한에도 봉수·칠골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주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 기독교가 나쁘다고 가르칠 리가 없겠지요. 북한은 그런 식으로 외부에 자기들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이고 싶은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일종의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코스 정도 되겠지요.

-중국에서 가본 교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따뜻했습니다. 남의 나라 땅이고, 탈북자들을 복송하는 그런 곳인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제 편이 되어 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걸 느꼈어요. 왜 제가 탈북해 중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러면서 ‘교회라는 게 나쁜 곳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 위해 기도도 해주었어요. 그곳에서 비록 잠시지만 성경도 배웠죠.

-그런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셨지요? 당시 심정이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몰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의지할 분이 그 분밖에 없었던 까닭에 탈북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얼마 없었지만, 어쩌면 그 때가 지금보다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현재 지 대표님의 삶에서 기독교 신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10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뤄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돌아보면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들이 지금 제가 공활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현장에는 어떻게 참석하게 된 건가요?

미국 측에서 먼저 참석해 달라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북한의 실상을 알려드렸습니다. 탈북자들이 복송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그 동안 제가 했던 여러 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죠. 북한인권이 그토록 심각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였으니까요.

-북한에도 당국의 눈을 피해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성경책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양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잘못해서 잡히더라도 하면 수용소로 가야 하니 까요.

-앞서서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북한이 이렇게 기독교인을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가) 전과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가 위협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를 접하는 주된 통로는 무엇입니까?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 방송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화해도 협력도 좋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도 함께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북한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북한 주민들이 과거보다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국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한때는 굶주리면서도 그 장밋빛 약속을 믿고 충성을 다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 점점 불신하게



‘목발의 탈북자’ 지성호 씨

된 겁니다. 모두가 충성했던 옛날과는 분명 다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 살점 건드리지 말라’고. 한 마디로, 해주는 것 없이 내 삶에 참견 말라는 겁니다. 내 살 길은 내가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걸로는 사회주의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는 자본주의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장마당도 그런 차원이요.

-그럼 북한 체제가 더는 버티기 힘들까요?

불안한 조짐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독재국가들은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도 북한을 도와야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보내면 대부분이 주민에게 가지 않습니다. 일부 특권 계층에만 흘러갈 뿐이죠. 그런 점에서 인도적 지원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사

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일도 그런 마음가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워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통일을 주지 않을까요? 또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의 정착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해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약 3만1천 명 정도인데, 그들과 하나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작은 통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지성호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의 휴대폰에 찍힌 발신자는 ‘말을 안 듣는 놈.’ 전화를 받자마자 익살스러운 소년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지 씨는 ‘삼촌’ 하며 재잘거리는 소년과 한동안 웃으며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 흔한 삼촌과 조카 사이의 살가움이다. 하지만 지 씨는 그 소년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지난해 지 씨의 도움으로 탈북한 소년. 지금은 먼저 탈북한 어머니와 한국에서 산다. 당연히 진짜 가족일 거라 생각했다. 그 소년과 통화하던 지 씨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김진영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무료 앱 다운로드

입학 문의 (213) 487-5437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종 되라”

미주성결교회 총회 LA에서 열려

제39회 미주성결교회 총회 개회 예배는 시온성결교회에서 16일 오후 7시 30분 최경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황규복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황용성 목사가 성경 열왕기상 13장 1-6절을 봉독했다. 이어 시온성결교회 성가대가 특송하고 이상복 목

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는 황하균 목사의 사회로 성찬식이 거행됐다.

예배에서는 지난 1년간 총회장으로 봉직하신 이상복 목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 OMS 밥 페더린 총재의 축사 시간도 진행됐다.

이흥근 목사가 내빈 소개 및 광고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교단가인 ‘성결교회의 노래’를 부른 후 최승운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엘비 권 기자



신임 목사 임직자들과 안수를 집행한 교단 지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순복음 북미총회 목사안수식 거행

세대 교체 실감... 3명 중 2명 차세대 목회자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주관 목사안수식이 지난 4월 11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거행돼 3명의 목사가 안수받고 임직했다. 임직자는 조형철(나성순복음교회), 성광엽(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박형운(캘거리순복음중앙교회) 목사 등 3명이다.

이날 예배에는 교단 소속 진유철 총회장, 안현·이정환 부총회장, 강신호 총무 등 교단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식순을 맡고 임직자들에게 안수했다. 특별히 이영규·김충남·지원갑 목사 등 증경총회장들과 안병준 목사(성시베데스다순복음교회), 고영일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선교목사)도 참석해 목사 안수를 축하하고 후배들에게 안수했다. 이들은 뉴저지 주, 텍사스 주, 네브라스카 주, 북카로라이나 주 등 여러 곳에서 이번 목사안수식을 위해 남가주를 방문한 것이었다.

이날 설교한 진유철 총회장(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은 “그리스도 예수

의 좋은 일꾼이 되라(딤후4:6-8)”는 제목의 설교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리더가 되기 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순종을 배우는 종이 되라”고 당부했다. 지원갑 증경총회장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목사,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목사가 되라”고 축사를 전했고 이영규 증경총회장은 “기도의 열매, 말씀의 실력, 헌신의 바력, 성령충만의 담력을 갖추라”고 권면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안수식은 북미총회 내 목회자의 세대 교체를 실감케 했다. 목사 임직자 3명 가운데 조형철 목사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영어 대학부를 맡고 있는 전형적인 2세이고, 성광엽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를 담당하는 국제사역국을 섬기다 현재는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는 차세대 목회자이다.

김준형 기자

한길교회 담임목사 청빙

LA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가 노진준 목사 사임 후,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있다. 정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M.Div. 학위를 취득했으며 5년 이상의 목회 경험(부목사, 행정목사, 교육목사 포함)이 있는 목회자 가운데 미국장로회(PC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회자 2명의 추천

서, 본인 이력서와 신앙고백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의 설교 2편도 제출해야 한다. 이 설교들 중 하나는 반드시 동영상 파일이어야 한다.

서류는 이메일 thewaychurch.calling@gmail.com로만 접수 받으며 파일 형식은 PDF이어야 한다. 마감일은 오는 5월 31일이며 제출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는다.

영적 건강처럼 육적 건강도 습관 중요

제1회 시니어 건강세미나 잔 허 원장 강사

제1회 시니어 건강세미나가 웨스턴병원 잔 허 원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지난 14일(토) 오전 7시 새일교회(정병노 목사)에서 열렸다. 본지와 실버티비 USA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참석해 유용한 건강 정보를 얻었다.

내과전문의인 허 원장은 “왜 병원에 사람들이 오는가? 대부분 심한 통증을 겪거나 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다. 너무 늦게 오게돼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의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매달 한번 씩은 병원에 가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무슨 병이든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강사로 암의 원인과 증상, 예방에 대해서 강의한 허 원장은 암의 증세, 암의 원인, 암의 발병 현상,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운동법 등을 강의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평소애 궁금



제1회 시니어 건강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한 건강정보를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세미나 후, 허 원장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듯, 육적인 건강도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일교회 담임 정병노 목사는 “5월 20일 주일 전도축제를 위

해 대신자를 품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와 전도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건강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건강세미나는 ‘중풍 예방과 원인, 치매예방, 통증치료’를 주제로 내달에 새일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밤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 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1>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

필자가 찰리 형제를 알게 된 것은 1년 전 이 형제가 선교훈련인 '비전스쿨'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그를 영적 아버지처럼 돌보아주던 한 목사님의 강권적인 권유에 마지못해 온 표정이었지만 얼마 전 당한 교통사고의 상처로 인해 얼굴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별로 말이 없었던 그는 8주간의 선교 훈련을 거의 매주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다가 결국 수료까지 했다. 그리고 난 후에 우여곡절 끝에 2주간의 터키 단기선교까지 다녀오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바로 얼마 전 과거에 비추어 가히 기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서 온 갖 세상 쾌락과 죄악에 빠져 살다가 거의 삶의 과국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하셨다. 그때가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 살던 무렵, 비전스쿨을 소개 받았다.

선교지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의 영혼들을 만나면서 메말라 있었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교우들 몇 명과 공향으로 마중 나가 기다리면서 모두에게는 '과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다.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림 끝에 출구에서 나오는 그를 보았다.

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다. 어두운 모습이 있었던 얼굴에 그런 기색이 없다. 정말 빛났다.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10여 주 동안 그를 섬기며 기도했던 우리 모두에게는 큰 보람과 기쁨이 넘쳤다.

우리는 그를 환영하고 바로 같이 저녁식사를 나누려 식당을 찾

았다. 그곳에서 그가 간증을 잠시 하면서 자신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부모님의 한없는 기도 때문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때 곁에 있던 한 교우가 "맞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요?" 하였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몰랐던 필자는 놀라움과 궁금함으로 아버지 존함을 물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존함이 어찌 되시나요?"

"이, 광자, 덕자 되십니다."

"이광덕 목사님? 한국문화회관 설립자이신 이광덕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어찌 그 어른을 모르리요. 1970년대 미국 이민 초기에 유학 오셔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후, 중국과 북한을 향한 선교의 사명으로 한국문화회관을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조선족 선교의 초석이기도 하고 수없이 북한을 오가며 '문화교류'를 도구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신 너무도 귀한 어른이시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한결같이, 마음이 정말 경이하신 분, 청렴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랄까 말할 것이다.

아! 그분의 아드님이 마침내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가 못다한 선교의 꿈을 이어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생각하니 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느껴져 감격스러웠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꼭 행복해야 할 이유들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행복해야 할 이유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본능이므로 먹어야 할 이유를 정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행복해야 할 이유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복해야 할까요? 행복에는 탁월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효과를 알면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꼭 행복해야 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우리가 꼭 행복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와 교제를 나누는 친구는 행복한 확률이 15% 증가합니다. 나의 행복 때문에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0%,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6%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는 행복할 확률이 40% 더해집니다. 나의 행복은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행복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연구팀들이 행복 프로젝트 전후에 생리 검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생리 검사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혈압저하,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를 의미하는 코르티솔 수준의 하락, 콜레스테롤 수치 하락, 면역

력을 높이는 멜라토닌의 상승 등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행복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하면 장수합니다.

우리가 꼭 행복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행복이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바드에서 행복학을 강의하는 손아치는 자신의 책 "행복의 특권"에서 행복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행복한 영업사원이 다른 사원보다 영업실적이 56%이상 좋다고 합니다. 행복한 학생이 문제해결 능력과 수업의 이해도가 더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면 성공합니다. 행복하면 능률이 높아집니다. 행복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행복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들 자녀의 행복에 중요한 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행복을 100점으로 본다면 48-50점은 유전적 요인이 결정합니다. 10점은 학력, 경제력, 사회적 위치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40점은 태도에 의한 의도적인 활동이 요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의 행복한 삶이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부

모를 둔 자녀가 행복할 확률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녀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합니다. 부모의 행복을 본 자녀들은 부모들처럼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꼭 행복해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기쁨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창조 신앙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 신앙의 하나님도 구원받는 백성을 보시고 잔치를 여시는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종말 신앙의 하나님도 믿음의 백성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마25:23)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살전5:16)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뻐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필자가 열거한 이유들 외에도 행복해야 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은 가까운 이웃들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12주년 새생명오아시스교회 헌당과 임직 등 경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김일형 목사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경사가 겹쳤다. 한인타운 올림픽 길과 웨스턴 길이 만나는 곳,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헌당하며 기념예배를 드리게 됐다. 또 예배에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된다.

헌당예배와 임직식은 오는 4월 29일 주일 오후 4시에 드리며,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설교할 예정이다.

이 교회는 헌당과 임직을 준비하며 헌당 축제도 한다. 4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에는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4월 28일(토) 오후 7시에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헌당 축제가 열린다.



새생명오아시스교회의 최근 새벽기도회 모습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측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교회당을 구입하고 헌당한다. 신실하게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주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전화) 323-730-7000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힘모아 코끼리 다리를 고쳐 줍시다!

사누 아르멜(Sanou Armel)!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사는 17세 소년입니다. 5살부터 작은 흑으로 생긴 것이 커지면서 코끼리 다리가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사누 아르멜(SANOU ARMEL)



빛을 땅 끝까지

이사야 49:1-7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1,600년을 두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흑암한 세상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시겠는데, 그가 오시어서 땅위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질 두 가지 비교적인 역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 위에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계약의 대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곧 남자들의 할례를 통하여 계속 확인, 보증시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효과가 무할례가 되는 의미 없는 결과로 전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방의 그리스도로까지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1.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비추는 복음

본문 1절에서 단수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나를”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지칭하는 말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항상 은혜계약의 성취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라는 사명의 입장에서 자신을 일인칭으로 나타내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구원사역을 위한 복음진리의 준비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중논법으로 반복해서 “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예언하시며 이름까지 지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의 내용을 깨닫고 믿어져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그 이름(예수)에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며,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람을 보지 말고, 인간적인 관계를 개의치 않으며, 모든 이들에게 날카로운 칼날로 쪼개어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종은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심령을 부수고 찢러 회개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카로운 칼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일깨우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디고 완악한 자들로 인해, 성과를 보기 힘들어 보내심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 탄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은 자들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사49:4)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49:6)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수고와 희생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 믿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구원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어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중에 더러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6-8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한도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계약을 맺으시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져오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막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 받은 것으로 다된 것인양 잘못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은혜계약에 의해서 택하심으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9-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말씀 중에서 이방인의 구원 얻은 숫자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으로 표현하여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4장 16-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에 따르는 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열국의 아비)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첫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만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색에 상관없이 이방 모든 민족들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3. 진리의 빛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성도

이사야 4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을 택하여 자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취주어서 그 빛을 땅 끝까지 밝히게 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숫자가 그 종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과로 이루어졌을 때 “열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불려져 쓰신 여호와로 인하여 얻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은 불품없는 인생들로 이유 없이 지냈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속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땅 끝까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당부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힘써주시기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사역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청원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장이로움을 갖추는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말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 일고 있습니다.

FABIEN FINANCIAL INC.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용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용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용자 문제 없습니다.
-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용자가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용자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매매 용자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밴스

SBA 용자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용자/Flipping Loan]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즈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용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용자상담
- Hard M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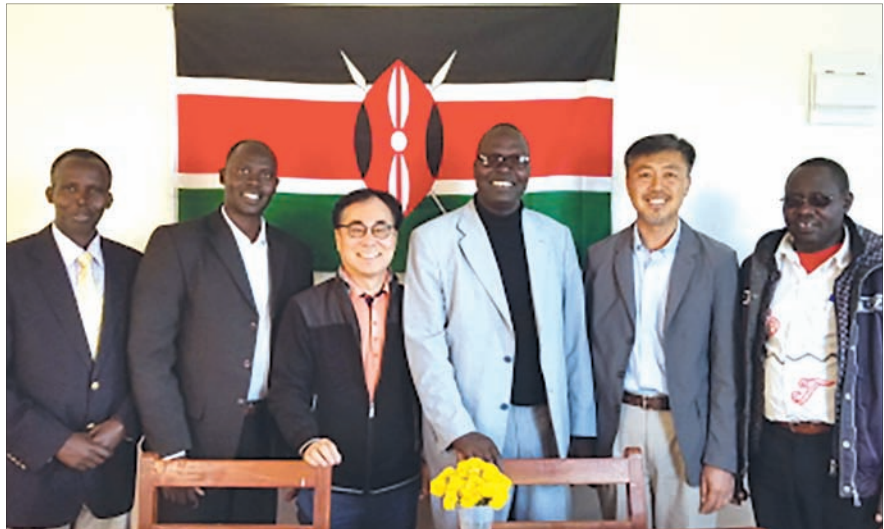
Love Foundation
LAW GROUP

러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김창환 총장과 케냐 아프리카내지교회 교단 관계자들 및 윤진수 선교사

GCU 온라인 프로그램 ATS 승인

전 세계 교육 선교의 질적 성장과 양적 확장

조지아주립대학교(총장 김창환 목사, 이하 GCU)의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온라인)'이 지난 2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승인됐다.

오랜 준비와 기도 끝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GCU는 '언제 어디서나 부르신 곳에서 섬김을 위한 학문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교육학 석사(MACE), 선교학 석사(MAMSWC) 그리고 목회학 박사(D. Min.) 과정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의미를 넘어, GCU의 주요 사명 가운데 하나인 '교육 선교'의 질적 성장과 양적 확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난 주 만난 김창환 총장은 "교육 선교를 외치며 꾸준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심어놓은 씨앗들이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귀한 기회를 열어주셨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도 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이를 목회자 재교육과 사역자 양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월에도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본교 학사, 석사 과정을 이용한 목회자 연장 교육과 정기적인 사역자 훈련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창환 총장과 송희숙 부총장은 다시 한번 선교지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의 필요성과 디플로마 과정의 교육만 받은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이 절박한 실정을 목도할 수 있었다.

위싱턴중앙교회에서 파송한 윤진수 선교사가 속한 교단인 아프리카내지교회(AIC) 교단은 케냐 내 최대 교단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그가 사역하는 마라케트 노회 270개 지역교회 중 교단신학교에서 신학교육 디플로마 과정을 마친 목회자는 70여 명에 불과하며, 교단신학교조차 학사나 석사 과정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송희숙 부총장이 지난 해 졸업식 설교자로 방문하면서 인연이 시작된 탄자니아 인도양 근처 다레살람에 위치한 ICM 신학교 역시, 미등록 상태로 신학교육의 필요는 절실하지만 가르치는 교수들조차 학사 학위만 있을 뿐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할 기회도 자원도 희박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GCU 교수진들은 일년에 두세 차례 방문해 집중교육과 향후 온라인 과정을 통해 목회자들과 교수들을 학위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GCU는 ATS로부터 철학박사(Ph.D. in Intercultural Studies) 학위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문화인류학 철학박사 과정의 학문적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남아공에서 20년간 선교사역으로 섬기고, 노스웨스트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던 김영무 선교사를 가을학기부터 신입 교수요원으로 영입한다.

앤더슨 김 기자



타코마 사랑의교회 성도들

타코마 신광교회, 사랑의교회 통합

이동기 목사 본국 귀국해 청년 사역 및 선교사 지원

지난 8일, 타코마 신광교회(담임 감장명 목사)와 타코마 사랑의교회(담임 이동기 목사)가 통합해 타코마 사랑의교회라는 이름으로 새출발을 하게 됐다.

사랑의교회를 담임했던 이동기 목사는 14년간의 이민목회를 마감하고 한국 오아시스교회(담임 문병용 목사)로 옮겨 아시아 지역의 해외 영어권 선교와 청년사역, 해외선교사들을 말씀으로 지원하는 사역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목사는 신광교회와 사랑의교회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교한 이동기 목사는 "서로 사랑하라(오한복음 13:34-35)"라는 제목으로 "사랑의교회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졌던,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성도가 되어 주님을 따라 겸손히 살아갈 때, 성도는 진정 빛 가운데서 교제하게 된다. 우리가 진정 빛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성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풀원 기자

고 말했다. 그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흔적이 빈무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주님을 따라 얻게 될 확실한 증거이며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죄인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교 후 짧게 인사를 전한 이인옥 사모는 "이민목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곳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상황을 순리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인옥 사모는 "이 시대에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랑의교회가 기드온의 정예부대 같은 교회가 되어 더 큰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기 보다는 힘써서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LA 지역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배양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세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세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세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연합세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 (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종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0 Email: lasehil@21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위치함)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매일 발기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엘리안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fferin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B에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부기도주일 오전 8: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빙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성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할-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정공부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절문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안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림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여 할과 같으리(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2부 오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절문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연

“한기연 바로 서서 한국교회 연합을” 회원교단장들 간담회 가져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교단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한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임원회에서 한기연의 진로를 놓고 논의하는 중에 대표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한국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기연이 바로 서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더욱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뜻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 교단장들을 모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훈 목사는 한기연 사업 후원금으로 1천만원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에게 전달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한영훈 목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기연은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건강한 연합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걸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회원교단들의 기도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를 비롯해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2대 박우근 목사, 3대 한영훈 목사, 5대 조일래 목사 등 증경 대표회장과 백석대 총장 장종현 목사, 세기총 증경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변재운 국민일보 신임사장,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과 회원교단 총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주민들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청평4리

가평군 주민 1천여 명 “신천지 박물관 건립 반대”

가평군 기독교·천주교계를 비롯한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신천지의 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며 지난 15일 ‘청평 지키기’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는 신천지가 박물관을 짓겠다고 최근 청평면 청평리 옛 공장이 있던 부지 2만 1,720km를 약 100억원에 사들였다는 소식

이 전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교인들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 한 주민은 “박물관이든 무엇이든, 우리 지역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형제여 일어나라! 복음통일의 때” 탈북 기독교인 1천명 함께 하는 ‘통일 특별기도회’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탈북 기독교인 1천명이 함께하는 ‘통일소원 특별기도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 개최된다. 이 기도회는 오는 28일 오후 1-5시 서울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북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철호 목사) 주최로 열린다.

4월 28일은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이다. 이날 함께할 1천여 명의 탈북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애국가가 바로 그 증거”라며 “기도를 통해 정치 분단 70년 동안 막혔던 휴전선의 철조망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될 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또 “지금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바로 이 때에 조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북한 복음화의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독립운동 같은 도전적 복음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라며 “올해 2018년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용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대용 기자

탈북민들은 “우리 민족사를 살펴보면 이 민족의 영토 분단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북쪽엔 소련군, 남쪽엔 미군과 유엔군이 각각 주둔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영토 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 분단”이라며 “1948년 김일성은 9월 9일 북녘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총선거를 실시하여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세계에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48년 이 민족의 정치 분단이 시작되고 올해 2018년이 70년째가 된다”며 “오늘 탈북민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분단 70주년을 맞는 의미에는 통일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복음은 북한 동포들을 우상숭배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고,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평화의 대안”이라며 “올해 정치 분단 70년, 급변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회가 복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해 복음을 북한으로 확산시키는 복음운동을 펼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삶 70년째에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맞았던 ‘꿈꾸는 것 같은 통일’을 분단 70년 올해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 ©T4G 영상화면 캡처

“미국교회 내 인종차별 더욱 확대”

데이비드 플랫 목사 경고

미국 버지니아 맥린바이블교회 담임목사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오늘날 미국교회 안에서 인종차별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단에서 정의를 언급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최근 켄터키 루이즈빌에서 열린 ‘투게더 포 가스펠(T4G)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인종차별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인종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플랫 목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내 삶에서 가려진 부분을 보게 하셨다.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보지 못했던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 많은 점에서 부족함이 넘지만 이 시간 설교를 전하게 됐다”면서 말씀을 열었다.

플랫 목사는 목사와 교인들에게 “우리가 주위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데 느리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면서 “아마도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미국의 목회자들과 우리가 이끌고 있는 교회들은 인종간 분열의 다리가 되어 주는 대신 역사적으로

이를 더 확대시켜 왔다. 최근까지도 인종간 분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변화는 가능하다”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상대방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교회는 인종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강력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 목사는 그러면서 다음 6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는 인종차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제로 ‘흑인이나 백인이냐’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인종적인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다인종 공동체 안에서 살 필요가 있다. 셋째, 서로에게 듣고 배워야 한다. 특히 당신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듣고 배우라. 넷째, 서로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자. 다섯째,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현재적인 정의를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정의가 온전히 이뤄질 그날을 고대하자.

강혜진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로니 플로이드 목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트위터

남침례회 목회자들 펜스 부통령 면담

목회자 연례회의 후 백악관 방문

미국 남침례회 대형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났다. 남침례회 메가메트로 연례회의(Annual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ega-Metro Retreat) 참석자들은 2박 3일간 진행된 모임의 마지막 일정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다.

아칸소 출신의 전 남침례회 총회장인 로니 플로이드 목사가 이끈 68명의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65명의 사모들은 지난 9일 시작된 연례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백악관 투어에 나섰다. 이들은 백악관 옆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빌딩을 방문했고,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약 90분 동안 빌딩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플로이드 목사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은 백악관의 대외협력력을 맡고 있는 제니퍼 콘 차장이 담당했다. 이후 이들은 펜스 부통령과 20분간 짝짜 만남을 가졌다.

텍사스의 잭 그레함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부통령과 미 행정부가 생명의 존엄성, 가정, 이스라엘 지지, 종교의 자유, 하나님 아래 강력한 국가의 보장 등 우리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성경적인 이슈들에 대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하루 종일, 그리고 많은 모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우리를 지지해달라. 맞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모임에 참석한 누구나,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플로이드 목사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수록 나라를 위해 더 잘 기도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플로리다 올리브침례교회 테드 트레일러 목사, 버지니아 리버티침례교회 그랜트 에스리지 목사, 버지니아 토마스로드침례교회 조나단 팔웰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3일 간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말하는 교회’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 플로이드 목사는 다양한 패널토의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1부 예배 오전 8:30 MP새움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8887 Tel: (323) 837-9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O. 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청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일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반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대학 오전 11:30(청년 영어)

김한요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일으켜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남가주 LA 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5년 이상 목회경험(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PCA에 가입되었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본인 소개, 신앙고백서 / 목회 비전
1년 이내 두편의 설교(최소 한편은 동영상)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목회자 2명의 추천서(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서류 마감일 5/31/2018
- **제출**
thewaychurch.calling@gmail.com
모든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길교회 청빙 위원회

4050 West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청빙공고

나성제일교회 유초등부

살롬! 나성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유일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김문수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이후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있으며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지원자격>

1.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데 신분상 문제가 없으신 분
2.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기본소통만 가능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관계, 사역경력, 학력 포함)
2. 신앙 간증
3.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lakfpc@gmail.com



김문수 담임목사

<서류 제출 마감> 사역자가 청빙 될 때 까지

<문의 전화> T. (213)388-7101

들어서라! Go and Stand in the River! HANARO 2018

임직예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4월 22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본당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 **연락처** : T.(626)912-6600

임직자

- **안수집사 장립** : 서 건, 최명환
- **권사 취임** : 류현아, 방정애, 정수영, 함정은

www.hanarochurch.org



사랑의 불씨를 날마다 가꾸는 지혜

사랑의 불씨를 날마다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불씨와 같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낍니다.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장 연약하면서 가장 강한 여인이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상실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온 몸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사랑하면 온 몸으로 듣습니다. 온 몸으로 느낍니다. 온 몸으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면 온 몸으로 말하고, 온 몸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감춰진 사랑의 언어가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되기 원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사랑하면 수줍어하던 사람이 당대해집니다. 사랑하면 연약한 자가 용맹스러워집니다. 또한 사랑하면 강한 자는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저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약해집니다. 친밀함의 비밀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가장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면 인

내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인내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소망을 줍니다. 힘을 심어 줍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 줍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는 사랑입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충만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벌써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를 가꾸듯 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의 작은 불씨를 잘 가꾸면 큰 불을 일으키는 거대한 불씨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것이 영성관리입니다. 사랑의 불씨가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불씨를 잘 가꾸어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사랑의 불씨가 작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씨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사랑의 불씨를 잘 가꾸고 키우도록 합시다.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7)

내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나와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해서 그들을 상전처럼 떠받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와 아내는 아이들에게 그 나이와 체력,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을 맡겨 왔다(사실은 '시켜왔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지만). 그것은 집안일일 때도 있고, 교회 봉사일 때도 있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일 때도 있었다. 목숨보다 아끼는 아이들이라면서 이렇듯 일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과 교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닌 모든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사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잘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을 통해 아이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임을 보여 준다. 하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역사하신다(빌2:13, 1:6).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못하셨을까?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예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셨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과 일하는 것이 더 느리고 복잡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것처럼 끊임 없이 사람을 불러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최고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

이다(마7:9-11; 요일 3:1).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사랍과 사명어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character)과 사랑의 본질(nature)을 이해하고 깨닫는다(엡3:18).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친히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이름과 비전과 말씀으로 알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에서 그분을 알게 되었다.

둘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초청받은 뒤에 반드시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과 행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사람을 찾으신다(잠25:13).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수로 위를 신나게 달린 차

얼마 전 신문에 어떤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글렌데일에 있는 수로를 달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로는 길 옆에 만들어진 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수로 위를 벤츠를 몰고 70마일의 속도로 물을 가르며 달린 것입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야 차를 멈추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수로를 고속도로 진입로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잘 덮여진 길이라고 해서 다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달리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물이 달리고 있으면 수로요, 차가 달리고 있으면 도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이라고 모두 동일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침례교회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통한 실수나 사고를 내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열심히 달렸는데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느냐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앞 길이 훑히고 신바람나는 인생을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 안내자나 지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 자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14:6).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가지 않는 인생은 영통한 길로 접어들지 못합니다. 둘째로, 좁은 길이 바른 길입니다.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협착하고 힘들지만 진리를 따라가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후5:7)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 능력의 참대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은 열릴 것입니다.

농인(聾人)들의 되물음 “들어야 행복한가요?”

“장애인 아닌, ‘언어 소수자’로 대해주길”

농인(聾人, deaf mutism)들과 평생 소통해 온 수화통역사인 저자가 그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이 있음을 경험과 예화를 통해 들려준다. 책에는 농인과 농사회(Deaf Community)에 대한 저자의 애정과 진심이 듬뿍 묻어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위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뿌리깊고 심한지를 깨닫게 한다. ‘이 땅의 농인과 한국수어 이야기’라는 부제의 이 책에서는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 인식돼 온 농인과 농사회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한다. 저자는 영화 <도가니> 제작 과정에서 배우들에게 수어(手語)를 지도하고 수어 대사를 직접 연출한 경력이 있으며, MBC 수화통역사로 활동 중이다.

농인은 90db 이하의 소리를 듣거나 구별할 수 있는 난청(hard of hearing)과 달리, 90db 이상의 소리를 듣거나 구별하지 못해 청력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를 이른다. 그러나 다수자인 ‘청인’들의 시선과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장애(소리가 들리지 않음)’가 아니라 ‘문화(세상을 눈으로 삶)’로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병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들 수 없는 사람들’이고 청각장애인이지만,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이라며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 중 노인성 난청이나 경미한 정도의 난청 등을 제외한 상당수는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농문화를 누리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나누고 소속감을 가지고 산다”고 말한다.

그래서 농인들이 다른 장애 영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청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들과도 거리감이 있다는 것. 사용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이방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류 사회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존중받음으로써, 청인과 대등하게 자신의 꿈을 키우고 이뤄 나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현대 의학기술은 청력이 회복되는 ‘인공와우 수술’에까지 이르렀다.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인공와우 수술’ 지원은 최고의 혜택으로 보이는데, 정작 농인들은 이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

“왜 청인들은 농사회가 정말 필요



영혼에 닿은 언어
김유미
홍성사 | 444쪽

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걸까! 인공와우의 확대는 수어의 몰락과 연결되고, 그 결과는 농인과 농문화의 말살이다. 그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호의를 증명하려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와우 수술 지원이 아니다. 차라리 그 돈을 공부하고자 하는 농인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농사회의 자립과 발전에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인공와우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세계’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할 뿐 아니라 유일의 가치로 규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사회에 한 가지 길만 강요하기 때문에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공와우 수술을 “내가 가진 달팽이관을 뜯어내고 정교한 기계를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주는 그 이질감과 폭력성”이라 표현한다. 농인들은 유아동의 인공와우 수술 확대는 수어의 몰락과 농문화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기에 우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렇다고 인공와우 수술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농사회는 그저 청인들이 ‘인공와우 수술만이 농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선택’이라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농사회의 자생적이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국수어를 존중하고 그 언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길 바란다.” 마치 미국 등 다문화권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제1언어와 제2언어를 익히

듯, 그들은 ‘언어적 소수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한국수어법(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한 언어권 확보를 원한다.

“농인들 고집은 당할 수가 없다, ‘농인들은 무지하다’, ‘농인들은 도덕성이 약하다’, ‘농인들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등의 소문들에 대해서도 “한국수어와 한국어, 농인과 청인과의 관계와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나온 ‘슬픈 고담들’이라며 “마치 연예인들의 작은 실수가 확대해석되듯, 수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실수와 실패들은 청인들에게 더 깊이 각인되고 더 쉽게 일반화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인들이 헬렌 켈러부터 니쿠이치까지 거론하면서, 장애인들을 ‘극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도 ‘헬렌 켈러 피로증후군’이라는 단어로 대변하고 있다.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자신을 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쳐가는 삶을 말한다.

“이제까지 농교육은 ‘구화 획득’, ‘장애 극복’을 가장 큰 가치로 내걸고 농아동과 학생들을 교육해 왔다. ...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번이라는, 자신의 일생을 한 아이에게 송두리째 바친 위대한 동반자가 있었지만, 한국의 농인들 중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설리번을 만난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세상은 농인들에게 헬렌 켈러가 되라고 말한다.” 오히려 저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들어야 행복한가?”

저자는 장신대 입학과 동시에 ‘사랑의 수화교실’ 동아리를 통해 한국수어에 입문, 농사회에서 농인들과 함께하면서 묵화와 수화통역, 상담과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농인’으로 오해받는 행복한 청인(聾人)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신학이 나에게 생(生)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다양한 삶에 대한 포용의 길이 되어 주었으나, 내 일생을 관통하는 진정한 전공은 한국수어와 농인이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언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우리 교회에는 왜 장애인들이 없는 걸까?

장애인 사역, 하나님 마음 가장 가까이에



신학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이해
데이비드 W. 앤더슨
밀알서원 | 280쪽

일어나도록 하셨나? 하나님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사고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이에 대해 저자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삶에서 질서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타고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장애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의혹들과 불확실함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들”이라며 “비장애인 신자들 역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장애를 유발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저자에 따르면, 장애인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질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 신자들이 예배와 교회에서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추정해선 안 된다.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 그룹, 성인 성경공부 같은 교회 프로그램 참여자로, 혹은 자격이 된다면 인도자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은 장애 당사자만큼이나 고통한 접근과 사역의 필요성이 있다. 그들 안에는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고, 보통 삶의 질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관된 사랑과 존중, 묵회적 돌봄과 함께, ‘소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주심으로 혹은 그들이 장애인에 되도록 허락하심으로 ‘징계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남용’이며, 하나님과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반영한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장애가 치료될 필요가 있다’고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이 되거나, 의도치 않게 장애인의 편에서 고립감과 상처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자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룬 후 다 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나 사회기관들에게 그 역할을 내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총체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해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이고 관계적인 필요를 언급하면서 인도주의적 목적들을 넘어서야 한다.”

이대웅 기자

오바마 케어 벌금면제

~성경적이며 저렴한 의료비 해결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CHM의 특징:

- 미주 최초, 최대의 의료협동조합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보다 60%이상 저렴합니다 월(\$45-\$150/인).
- 지병/신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의사/병원을 선택하고, 한국의 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훌륭한 임신/출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료비 혜택 후 할증되지 않습니다.

- 골드회원인신 분들은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에 의해 본인 부담금이 종전에 있었던 \$500 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2017년 세금보고시 필요한 8965form 안내를 해드리니 한인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실버나 브론즈 회원들도 응급실 사용이 지원됩니다.

***CHM 한인지원센터 714.738.1234**
(교회, 사역자, 회사등 그룹가입 문의는 Ext.404를 눌러주세요)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 www.chman.org

CHM이란...
CHM은 오바마케어 벌금이 면제된 의료비용 나눔사역을 바탕으로 세워진 비영리단체로서 미주 최초이자 최대의 의료협동조합입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 퇴행성 관절통증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셀라케어

산성	중성	알카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무덤에는 다윗이 즐겼던 하프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다윗왕을 기리는 무덤의 장식물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0)

다윗왕의 무덤

바로 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후의 만찬과 성령강림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 아래 1층은 다윗왕의 무덤이다. 마가의 다락방을 다 보았으면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다윗왕의 무덤으로 가 보자.

다윗왕의 무덤

무덤 입구에서는 나무로 만든 '메주자'(성경보관함)를 볼 수 있다. 문 옆에는 '키파'라 부르는 자그만 빵떡모자가 있는데 남자는 이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수건을 머리에 둘러야 무덤을 향하여 갈 수 있다.

삼하 5장 7절에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하며, 이 성의 이름이 이후에 다윗 성으로 바뀐다. 왕상 2장 10절 이하에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십년이라 하였다. 이스라엘

의 통일왕국을 이룩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이곳에 안장된 것이다.

사실 역대 왕들의 무덤은 이스라엘에 없다. 어느 왕이라도 왕이었을 때만 그의 권위와 영광이 빛나는 것이지 죽으면 평범한 인간처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왕의 무덤을 만들면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되니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무덤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무명이나 유명이나 할 것 없이 그가 죽으면 열조에게 돌아갈 뿐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은 계속 된다.

예루살렘 서쪽 지역인 헤르젤 산에 가면 국립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헤르젤을 비롯하여 역대 유명 정치인 장군들로부터 무명용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묻혀 있다.

필자는 1995년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암살당하였을 때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였는데, 놀란 것은 아무리 유명한 총리였어도 들어갈 곳은 한 평 땅 같다는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죽어서는 더욱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흠으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뿐이다.

고고학적 발굴

사도행전 2장 29절에 "다윗의 무덤이 오늘날 우리 중에 있도다"라

는 구절을 볼 때 다윗의 무덤은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사도시대에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이 135년 디아스포라가 된 후, 다윗의 무덤도 파괴되어 없어졌다. 985년 이스라엘을 사랑한 유대인들이 현재 이곳을 찾아왔고 1165년에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이 무덤에 대하여 언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1859년에 현재의 자리에 석관으로 무덤을 꾸민 것으로 나타난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시온산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건물의 1층에 다윗의 무덤과 유대인 회당과 탈무드 학교를 만들었고 2층은 폐쇄시켰다.

1951년에 다윗의 무덤에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하였고 초대교회 시

대의 건축물인 기독교인들의 교회와 유대교의 회당이 발굴되어 기독교의 전승이 확실함을 나타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조상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언젠가는 다윗왕의 영토가 다시 회복되기를 꿈꾼다.

다윗의 무덤은 실제 무덤은 아니고 가묘이다. 길이 2m 정도 되는 석관 위에는 토라와 왕관이 있으며 석관을 싸고 있는 천에는 다윗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에 있다고 쓰여져 있다. 다윗이 평소 즐겨했다는 하프와 다윗을 상징하는 별들이 석관을 수놓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 준다.

(계속)



무덤 입구



남자는 모자를 써야 다윗왕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



다윗왕의 무덤 내부에 꾸며진 서가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미주내), 개척 장로회 한미 연합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고화순목사 초청 성령치유회복 부흥성회

고화순 목사
실로암복지재단이사장
도봉산 광명기도원 원장
실로암수양관 원장
세계교회 부흥선교회 기도분과 회장
N.Y 국제 선교부총재
사랑의 집짓기운동 이사전국기도원연합회총회장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나눔과 섬김의 교회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한복협 4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BMTS에서는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이론, 실습 강의를 이뤄졌다. ©BMTS

“선교계, 방황하는 한국교회 위해 새 길 제시”

한복협, 4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익 목사, 이하 한복협)가 4월 13일 오전 서울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한국교회 선교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월례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서 강승삼 목사(한복협 국제위원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는 시편67편 1~7절 본문, ‘주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승삼 목사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 교회의 협력, 부흥과 갱신, 주일학교 재흥, 미자립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들의 은퇴 복지 등 한국교회의 과제가 많지만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라고 말한다며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옛날의 일방통행식 선교사상을 버리고 쌍방 또는 다차원적 선교사상을 채택할 것’과 ‘유럽교회와 선교사역이 왜 퇴락하는지 알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정국 선교사(한복협 선교위원장, 전세계한인선교기구연대)는 ‘한국선교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를 제목으로 한국선교의 성취와 전망에 대해 말했다.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2017년까지 선교사 파송 수가 100명에서 275배가 늘어난 27,436명을 기록했다. 한정국 선교사는 이 중 2000년, 2005년, 2010년을 나눠 분석했다.

2000년도의 핵심적 논의는 ‘선교사의 재배치’였다. 이 배경엔 미전도종족선교 운동의 중심인물인 랄프 윈터 박사가 지적한, 선교사의 26%만 미전도종족 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통계,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제시된 객관적 자료 등이 있

다. 한국선교계가 ‘하프타임’으로 설정한 2005년은 과거 선교 25년을 예리하게 평가하고, NCOWE IV를 개최해 200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씩 미래 25년의 한국 선교 마스터 플랜 ‘Target2030 Vision’을 세운 해였다. 큰 방향성은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추구되는 시스템 요구, 저비용 고효율 선교 시스템 구축, 한국적인 적합한 시스템 개발, 책무성이 있는 시스템 구축, 협력 시스템 활성화, 선교지 중심 시스템 활성화였다.

이후 2010년 7월 NCOWE V에서는 리서치를 통해 ‘한국형 또는 한국적 선교 모델 발굴과 전략개발’에 초점을 모았다. 한국형 선교의 필요 이유는 ‘서구 신학의 심각한 한계’, ‘서구 신학이 주도권을 갖고 서구 모델을 전수 중인 것’, ‘기독교 중심축이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한 것’, ‘한국형 선교 및 선교학의 개발이 시급한 것’을 꼽았다. 또한 ‘성경적인 것’, ‘우리 자신을 성찰케 하는 것’, ‘이론과 실천이 포함된 것’, ‘통합화를 지향할 것’이란 한국형 선교의 4대 방향성을 정했다.

특히 한정국 선교사는 2014년도를 ‘한국기독교와 선교 역사의 의미 있는 획을 그은 해’로 평했다. 여러 선교대회와 행사가 이뤄졌고 무엇보다 한국기독교와 한국선교를 적나라하게 살피며 문제와 해결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한국신학의 세 가지 모델로 정립된 초문화성격의 한국교회사 속에 나타난 현상 신학을 ‘고난을 동반하는 복의 신학’과 ‘위기와 변혁의 신학’, ‘세계 선교를 수반하는 민족 복음화 신학’으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통해 한국선교의 오늘을 살피며 ‘이제는 한국선교계가 방황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가 됐다’며 ‘한국 개신교 13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행전은 우리에게 21세기 선교의 큰 길라잡이가 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박순영 목사(장충단교

회 담임)가 ‘선교사 멤버케어 다시 한 번’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순영 목사는 KWMA 발표 통계 자료에 의한 파송 선교사 수를 언급하며 ‘이 수치는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지지 않고 힘 있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선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 교육과 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선교사 멤버 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전했다.

박순영 목사가 제시한 ‘선교사 멤버 케어’는 ‘이미 훈련을 마치고 파송된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본질과 자신의 정체성, 수행하는 업무와 인간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더욱 분명하고 건강한 다음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과정’이다.

그는 ‘선교사가 성장하지 않고 초보 상태에 머무르면 선교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선교사를 길러 파송하는 일보다 파송된 선교사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선교사의 탈진과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선교사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도록 교단이 멤버를 케어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숨 가쁘게 변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선교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재정적 후원을 감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중세기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병사들의 개선을 모든 이들이 환영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의 귀국이 ‘왕의 귀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교회의 멤버 케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교사를 만날 때 시혜를 베푸는 태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이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프로그램보다 성과보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멤버케어 후원이사회 조직을 제안했다. 김신의 기자

단한 지역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제1회 BMTS(Business Mission Training School)가 지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근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러시아, 멕시코, 미국까지 총 12개국에서 교회와 제자 삼는 사역을 비즈니스 선교 안에 담아내기 위해 고민해 온 선교사 47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커피선교’를 알려 온 에스드립 대표 순문성 선교사(기독교대안관리회·KMC 소속)가 강사 섭외부터 야심 차게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몇 달 안 된 신참 선교사부터 20년 차 베테랑 선교사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선교사들이 모였으나, 모두 비자 문제를 치른 경험, 비즈니스의 옷을 입고 사역하느라 주위로부터 오해를 받은 경험, 정체성 문제와 전문성 부족 등 같은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였다. 순문성 선교사는 ‘대부분 선교사님이 소박한 비즈니스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선교를 하고 계셨다’며 ‘제자 5명에게 월급을 줄 수만 있어도 당장 카페를 연다는 분, 현지인들과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이 월급 주고 월세 낼 정도만 돼도 좋겠다’는 분, 고아원 아이들의 머리를 직접 이발해주고 싶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순문성 선교사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의 실력 있는 강사들을 불러 주셨고, 우리의 기존 경험과 틀을 무너뜨리셨다’며 ‘이슬람권과 공산권, 불교권 등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선교는 더 많은 제자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는 하나의 도구가 아님, 필수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임을 이번 기회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BMTS에서는 카페, 외식업부터 헤어 미용, 두피 관리 등 미용 서비

스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과 실습이 예매, 선교 현장 나눔과 함께 진행됐다. 새로운 형식의 첫 선교사 맞춤형 프로그램이기에 베테랑 선교사와 스태프들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문성 선교사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셨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한 단계씩 우리를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은 비전 위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했다.

전문 강사들도 현장 수업을 위한 전문 장비들을 자비로 운반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교육했다. 메디컬 두피관리 전문업체인 ‘리디아153’은 최신 두피관리복합기를 들여오기 위해 항공운송료만 몇백만 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한국기독교선교인협회(한국CBMC) 이승률 중앙회장이 영상을 통해 제1회 BMTS를 격려했다. 이승률 중앙회장은 ‘비즈니스가 있는 곳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가 없는 곳에도 비즈니스를 만들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때’라며 ‘이러한 창업선교를 위해 세계에서 뛰고 있는 한국CBMC와 현지 언어 및 풍습, 시장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여 선교지의 복음화와 자립화에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모임에 후원하거나 직접 참여한 한국과 미국의 CBMC 대표들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한 이번 BMTS는 주님의 작품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참석한 선교사들도 ‘우리는 비즈니스와 미션이 성공할 때까지 협력하기로 결단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2회 BMTS를 진행한다. 순문성 선교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전문인들을 연결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 변화됐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1) - 임상우 변호사

본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임상우 변호사다. 그가 믿음의 변호사로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본인의 결단의 열매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 그는 심대 시절을 부적응 학생으로 보낸다. 쉽게 형용할 수 없는 방향의 세월이 있다. 혹은 방향과 반항의 세월을 보내는 심대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있다면 임상우 변호사의 삶을 통해 방향하는 자녀들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기를 바란다. 깨질 듯 깨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어 온 길에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건실한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임상우 변호사의 삶의 얘기를 세상에 내어 놓는다.

남가주에 단비가 내리는 이른 봄날 아침! 단비처럼 반가운 사람 임상우 변호사를 기자가 만났다. 안 내를 받아 접견실에 앉은 기자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임상우 변호사! 다부진 체구 그리고 매서운 눈초리, 다정하고 친근하지만 확신에 찬 언어, 범상치 않은 첫인상이었다. 순간의 긴장을 환한 미소로 풀어준 임상우 변호사는 대화 내내 예수 향기 가득한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 놓았다.

방향과 반항의 시절을 지나

임상우 변호사는 10대에 가족과 함께 남가주로 이민을 왔다.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이민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임 변호사는 전형적인 1.5세대. 이민열풍이 한창이었던 80년대 초 온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다. 가만 두어도 어려웠을 중2 시절을 이민자로 미국 학교에서 보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이 쉽지 않다. 그 시절 임상우 변호사는 그야말로 방향과 반항의 세월을 보냈다. 방향하는 심대들이 할 수 있는 탈선 과정은 거의 다 거친 것이다.

자칫 자신의 허물이 될 수 있는 쩌한(?) 경험들을 너무나 진솔하게 쏟아내는 임상우 변호사에게 묘한 매력을 느꼈다. 동시에 신앙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의 능력과 담대함을 느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기에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특별한 경험을 가진 임상우 변호사가 자전 타천으로 현재 한인 장학

재단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인 장학재단은 전도 유망한 차세대 한인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며, 우리 한인 2세들을 미국 땅에서 세워가는 장학 단체다.

경제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청년 임상우는 고교 졸업 후에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서 로스쿨을 졸업한다. 대학 졸업은 어려웠지만 로스쿨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온 집안은 빛더미에 앉는다. 모든 가족들이 크레딧 카드 빚을 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과정에서 온 가족이 크레딧 카드 빚으로 살아온 것이다. 변호사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개업을 할 수가 없었다. 변호사 협회에서 임상우 변호사의 경제적 불안정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몇 번의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 가진 후에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다.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후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다. 어렵게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은 한산했다. 급한 마음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기다렸던 임상우 변호사와 가족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물론 빚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야말로 악화일로 엮였다. 매달 빚을 갚아가는 과정을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호사 개업을 허락한 것인데 빚을 갚기는 커녕 빚이 늘어만 가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하나님

1년 정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얻은 총 수입이 5천불 정도였으니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본인의 수입은 차지하고라도 사무실 임대 및 인건비 감당도 어려웠던 것이다. 12월이 되었는데 내년을 맞을 희망도 끈 기도 없었다. 크레딧 카드 회사가 더 이상 기다려 줄 상황도 아니었고, 경제적 위기에 몰린 가정을 회복할 기력도 없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홀리스의 삶이 눈앞에 그려지는 상황이었다.

마침 교회에서 21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다. 임상우 변호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작정했다. 모태



임상우 변호사

신앙으로 자라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임상우 변호사에게는 대단한 결단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 새벽기도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한다. 1년에 5천불을 벌었던 변호사 사무실은 21일만에 1만불의 수입료를 받았단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21일째 되는 날은 더 놀라운 기적적 응답을 경험한다. 당시 가장 큰 한인 로펌에 취업이 결정된 것이다.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 로펌에서 나름대로 보람된 변호사 생활을 한동안 하였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취직한 그곳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제 겨우 살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다시 그 어려운 적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또 다시 막다른 골목에 만난 임상우 변호사는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찾아 금식 기도를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삶의 보파리를 풀어 놓은 것이다.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드린 첫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토하

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고 굳건한 확신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기도원을 내려와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법률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사무실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 고객이 많아지니 수입도 좋아지고 여러 형편이 호전되었다. 그 엄청난 빚을 2년 만에 완전히 청산하는 등 말로 형용기 어려운 축복을 주셨다.

든든한 어머니의 기도

임 변호사가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도록 날마다 철야기도로, 새벽기도로 눈물 흘리신 어머니의 기도를 임 변호사는 잊지 못한다. 임 변호사는 요즘 보기 힘든 효자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섬긴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의 능력을 안다. 자신이 방황하던 시절에 드린 어머니의 목마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

남가주의 빛과 소금으로

임 변호사는 이민 변호사로 매일 고객을 만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일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경험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고 있다.

그는 매일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한다. 변호사로 생활하다 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보이지만 임상우 변호사는 늘 그런 유혹에 눈을 감는다. “변호사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돈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임 변호사에게 신뢰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나누는 삶을 산다. 임상우 변호사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주변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를 포함해, 소속된 공동체에 헌신하려고 노력한다. 장학 사업이나 봉사 단체에도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교회 사역에도 헌신적으로 동참한다. 그래서 활발하게 변호사 활동을 하지만 늘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살아간다.

신앙인 임상우 변호사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을 사모한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두려워한다. 질편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임상우 변호사의 몸부림에 박수를 보낸다.

강태광 편집위원



박종순 목사에게 길을 묻다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 연재글을 모았다.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부딪히는 성도의 고민과 궁금증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정통적 가치 안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러 물음에 관해 진솔한 답을 내놓는 저자 특유의 통찰력과 문체는 공감을 자아낸다.

박종순 지음 344면 / 15,000원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맘몬이 지배하는 현실과 맘몬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닌 맘몬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경제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고 코이노니아적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선교하는 미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운영에 관한 관점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강천 지음 288면 / 12,000원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중세교회사 I, II

정수영 목사의 교회사 시리즈

중세교회사 1권은 1000년 동안 유럽 세계를 암흑으로 이끌어 간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밝히는 데 교황의 역사, 유럽교회의 역사, 주류교회와 다른 소수 교회 역사를 신약교회 사관에 의해 알아보고 교황들이 과연 신앙에 부합한 무리들이었는지 살펴본다. 2권은 17세기 이내 유럽의 선교 역사, 동방정교회의 역사와 신학, 중세기 수도회 운동, 십자군 전쟁, 중세기 미신 신앙,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암흑 속에서 개혁 추구, 분리 교회의 역사 내용을 다뤘다.

정수영 지음 1권 484면 / 23,000원 · 2권 920면 / 40,000원(신국판 양장)



코이노니아 경제의 꿈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정길 6 ☎ 747-1004 쿨란출판사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이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